



## 대통령 당선자에 주는 명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우리의 손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았고, 혼탁 없는 선거혁명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앞으로 들어 설 새 정부에 기대가 크다.

산사에 계신 큰 스님들이, 노무현 당선자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국가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 대통령에게 주는 덕담을 보내왔다.

도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보성(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황대선원 조실) 일우(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천운(대흥사 조실) 수산(조계종 원로의원) 스님 등 원로스님들은 노 당선자에게 "무릇 대통령은 올바른 정치를 펼쳐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스님들은 지역적인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했다. 민심은 천심인 만큼 장관이나 비서관들의 충언을 되새겨 듣고, 시비를 초월한 대재대비의 정치로 금권과 비리가 없는 정토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자는 내가 제일이라는 이상을 버리고 민족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달라고 했다.

혜안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깊은 산사에 계신 스님들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말도 하심 하라는 것이다.

새 대통령 앞에 과제가 산적해있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실제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불교계와의 약속을 비롯 국민들에게 제시한 청사진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취재1부 차장)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 비구니스님들 위상 높아진다

포교·복지·NGO는 물론 군승의 문도 열릴 듯

주변만 맴돌던 시대는 지났다. 활동력과 그 영역이 크게 넓어지면서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불교 발전의 당당한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포교, 복지, NGO 분야의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비구니스님들에게는 혈통과도 같았던 군승의 문도 열릴 전망이다. 바야흐로 '비구니 스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류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16일 '군 포교비전 21'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도 비구니 상임감찰을 임명해 비구니 스님관련 사건을 조사토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총무원 호법부 비구니 상임감찰 추진 행자교육원 사상 첫 '사미니율의' 강의

사실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영역은 눈에 띄게 넓어졌다. 올해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산 관동도로 및 천성산·금정산 고속철 건설 반대운동의 핵심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있었다. 복지분야의 경우 최근 2년 새 복지관 관장을 포함한 시설장이 6명이나 늘었다.

군승과 마찬가지로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문덕이 높았던 경승 분야에서도 최근 2-3년 새 5명 가량 늘었다. 2년여 전 실시됐던 조계종 16기 행자교육원에서는 행자교육원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사미니율의'를 강의

하기도 했고, 비구니 선원도 증가 추세가 있다. 수동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과거 지사다.

2002년 12월 현재 조계종 승려수는 사미 1,768명, 사미니 1426명, 비구 4,269명, 비구니 4,291명으로, 수치로 본다면 비구니가 비구 보다 많다.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94년 개혁종단 이후 중앙총회의원에 10석이 배분됐고, 조계종 중앙총무 기관에 안배차원에서 2명의 비구



## 노무현 대통령 당선 "대통합의 시대 열것"

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노 후보는 20일 당선이 확정된 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찬 새 역사가 시작됐다"며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진정한 보통사람들의 사회를 만들고, 7천만 온 겨레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당선자는 △북한산 관동도로 경부고속철 전면백지화 △황룡사 미륵사 복원 △불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의 불교계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0일 노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대스님은 축하 메시지에서 "21세기 첫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지적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지도자이자, 밝고 어진 정치로 늘 신뢰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문 남·북 불교계 WFB서

남북 불교계가 말레이시아 세랑고에서 열린 제 22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선언문'을 채택했다.

11일 조계종(총무원장 정대)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한국의 통일은 오직 남북한 주민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을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밝힌다'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WFB는 조계종을 한국지역 본부로 가입시켰다. 남동우 기자

## '불신·원망 말고 평화의 지구촌 되길'

정대 총무원장,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메시지'를 17일 발표했다.

정대스님은 축하메시지에서 "인류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이 충돌하면서 폭력과 전쟁으로 수많은 죄없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때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며 "예수님 오신 날을 맞아 참사랑과 평화의 정신

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불신과 원망을 걷고 사랑과 평화의 지구촌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도 지역불교 관계자들과 함께 25일 대구 계산성당에서 열리는 성탄절 미사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영남불교대는 22일 사찰 앞마당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한명우 기자**



"탁발 통해 이웃사랑 일깨워요" 식발을 하고 승복을 입은 통도사 양산포교당 연화유치원생 8명이 고사리 손으로 받쳐 든 발우에 천원, 5천원의 정성이 담겨졌다. 양산시불교연합회(회장 도봉) 주최의 불우이웃돕기 탁발행사는 유치원생들과 양산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 20여명 등 총 30여명이 탁발로 2백4만9천원을 모았다. 양산불교연합회는 18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양산시 사회복지과에 전달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불교계에 '일간지'가 없다? ...buddhanews.com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불교계 뉴스·날씨·쇼핑·신행정보 등 푸짐

매일 신선하고 정확한 불교소식을 전해온 붓다뉴스가 2003년을 맞아 일간 불교전문 인터넷 신문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현장의 속소리까지 전하는 뉴스**: 20여 취재 기자와 5명의 해외 통신원이 현장에서 견져올린 생생한 뉴스들을 전하는 붓다뉴스는 불교소식의 가장 빠른 전달자로 다가갈 것입니다.

▲ **취재기자와의 1:1 만남**: 기자 커뮤니티를 통해 취재 기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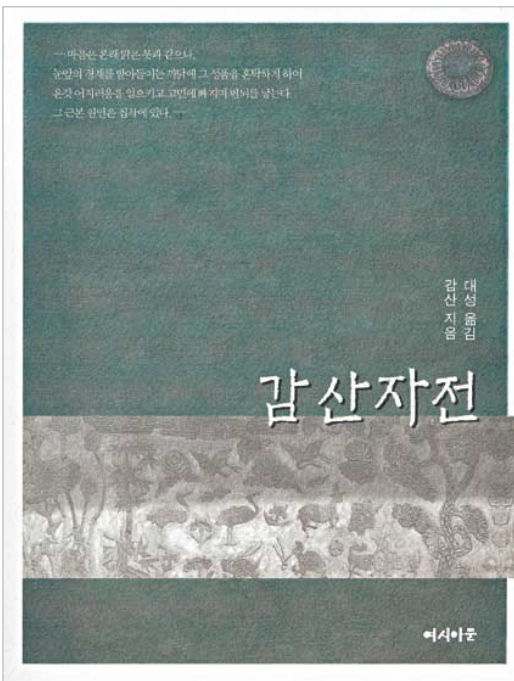
▲ **생활정보가 가득**: 날씨에서 알뜰쇼핑정보까지 다양한 생활정보를 여기저기 클릭하지 않아도 '붓다뉴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신행정보**: 신행캘린더를 클릭하면 신행 정보가 날짜별로 쏟아져 나옵니다.

▲ **재미있는 기획연재**: 붓다뉴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익하고 신선한 연재를 들이 불교공부와 신행의 재미를 더해 줍니다.

"붓다뉴스의 새 얼굴과 만나면 즐거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 마땅히 가야 할

#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慈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인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짧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할 것인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은이 **감산** (慈山, 1546~1623) 스님은 운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의 지육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여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普賢에 머물면서 선법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계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